

民譚의 敎訓性에 대한 狀況論的 研究

金 榮 晚*

- | | |
|---------------------------|------------------|
| I. 序 論 | III. 民譚의 敎訓的 機能 |
| II. 狀況論的 方法에 의한 民
譚 研究 | IV. 民譚을 통한 意思疏通 |
| | V. 結 論 |

I. 序 論

민담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이기 때문에 시대와 지역과 개인에 따라 수많은 변형이 생긴다. 그러나 그 많은 변형 속에서 민담의 根源形(Ur-form)을 再構하고 발생지와 전파 경로를 찾는 작업은 역사·지리학적 연구 방법에 의하여 많은 진전을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민담의 話者와 聽者 사이의 意思疏通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이다. 이 문제는 민담을 살아 있는 상태 그대로, 즉 민담이 口演되고 있는 상황과 민담을 口演하는 話者, 그리고 민담을 듣는 聽者를 종합적으로 연구할 때만 가능하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담에 대한 민중들의 태도와 민담 口演時에 표현되는 話者의 민담에 대한 의미 해석을 중심으로 민담이 지니고 있는 교훈적 기능을 狀況論的 입장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II. 狀況論的 方法에 의한 民譚 研究

Grimm 형제에 의해서 처음 민담 연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많은 새

* 東義大, 釜山産業大 講師

로운 연구 방법이 개발되어 민담의 다양한 성격이 하나하나 규명되어 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중에서 특히 큰 업적을 쌓은 것으로서 R.M. Dorson은 민속에 대한 현대적 이론이라 하여 12가지 연구 방법을 들고 있으니, ① 역사·지리학적 historical-geographical, ② 歷史再構的 historical-reconstructional, ③ 관념론적 ideological, ④ 기능적 functional, ⑤ 심리분석적 psychoanalytical, ⑥ 구조적 structural, ⑦ 口述常套語句의 oral-formulaic, ⑧ 교차문화적 cross-cultural, ⑨ 민속문화적 folk-cultural, ⑩ 집단문화적 mass-cultural, ⑪ 半球形的 hemispheric, ⑫ 상황론적 contextual 등의 연구 방법이 그것이다.¹⁾

이 중에서 필자는 지금까지 가장 큰 업적을 남긴 바 있는 역사·지리학적 연구 방법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최근 새로운 방법론으로 시도되고 있는 상황론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역사·지리학적 방법은 민담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려는 최초의 시도였다. 핀란드식 연구법이라고도 부르는 이 방법은 세계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민담의 변형을 수집하고 話素別로 분류하여 그 설화의 根源形을 재구성하고 그 발생지와 전파의 방향을 규명한다. 이 방법에 의하면 가장 많은 수의 에피소드를 가지며 가장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또 가장 오래된 것이고 가장 완전한 문학성을 가진 민담을 根源形 Ur-form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根源形이 발견되는 곳을 그 민담의 발생지라 보며 모든 민담은 발생지를 중심으로 하여 파문과 같은 형태로 각 지역으로 전파되어 갔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지리학적 연구 방법은 假定の 설정과 연구 방법에서 비현실적인 면을 띠고 있다. 우선 根源形의 설정이 무의미하다. 민담이 어느 지역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항상 변화를 거쳐 재창조되는 것이라면 현재 전승되고 있는 민담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이지 根源形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根源形은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假定이요 理想形에 가까운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상의 비현실

1) R.M. Dorson ed., *Folklore and Folklif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2), pp. 7-47.

적인 면을 살펴보면, 이 방법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세계 각처에서 전승되고 있는 모든 민담을 빠짐없이 수집해야 할 것인데 그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 비록 만족할 만큼 많은 수의 민담이 수집되었다 하더라도 각 민담의 발생 시기를 알아내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담을 話素別로 나누고 그것을 상호 비교하여 根源形을 再構하는 일이 민담의 有機體性을 죽이는 일이 되며 또 이 방법은 민담의 사회적 기능이나 內在된 의미의 파악을 소홀히 하고 있다. 민담이 전승과정에서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변형되는 것은 무슨 이유이며 전승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면서 전승집단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는 이러한 역사·지리학적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역사·지리학적 연구 방법의 또 하나의 의문점은 전파에 대한 견해에 있다. 민담의 이동은 결코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경과 언어를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또 모든 민중이 다 민담의 전파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다. 민담의 전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話者와 聽者 사이의 친밀한 인간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간관계 아래서 반복하여 듣고 또 그 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다른 사람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한 집단 속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적극적인 전승자 very small number of active bearers' 뿐인 것이다.²⁾

演行者和 聽衆 사이의 친밀한 인간관계에 의해서 민속이 전승되는 점을 중요시하여 텍스트 중심의 민속 연구를 지양하고 연행 상황과 텍스트, 그리고 연행 그 자체의 三者가 조화를 이룰 때에 민속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보고 민속이 연행되는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민속을 연구하는 방법이 狀況論的 연구이다. 민속은 연행자와 청중이 함께 참여하여 연행하는 가운데서 재창조되고 전승되므로 연행을 떠난 민속은 그 의의가 없으며 연행자와 청중의 관계, 그리고 연행의 상황이 이 연구의 관심의 초점이 된다.³⁾

2) C.W. von Sydow, *Folktales Studies and Philology: Some points of View*, in A. Dundes ed., *The Study of Folklore*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J., 1965), pp. 229-233.

3) R.M. Dorson ed., op. cit., pp. 45-47.

이 방법에 의하면 민속은 집단 구성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藝術的 意思疏通 행위로 정의되며 민속의 연구를 통해 문화적 상황 내에서 복잡한 메시지의 표현을 지배하는 意思疏通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⁴⁾ 이러한 의사소통의 행위는 민속 遂行者의 遂行을 청중이 어떻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와도 상관되며 이러한 관계를 더욱 확장시켜 청중의 상호관계에 의한 상황의 구조에 따라 민속의 장르를 구분하는 시도도 이루어졌다.⁵⁾

B. Malinowski가 하나의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原住民의 관점을 존중하면서 문화현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문화를 연구할 것을 제안한 이래 상황이란 용어는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었는데 상황론자들이 사용하는 '상황 context'이란 용어도 여기서 발전된 개념으로서 이 개념을 빌어오면 역사·지리학적 연구나 구조주의적 연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演行者와 청중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나 민속에 대한 집단 구성원들의 태도 같은 것이 그것이다. 전설을 예로 들어 연행자와 청중의 인간관계를 말한다면, 일반적으로 민담이 흥미성을 지니는 데 대해서 전설은 진실성을 지닌다고 하는데 이것은 話者와 聽衆들 사이의 관계나 演行狀況을 무시하고 텍스트에만 의존한 皮相的인 결론이다. 演行 現場을 중심으로 한 L.Dégh의 연구에 의하면, 전설은 각자의 나이나 性·종교·소속집단에 따라 그 진실성을 半信半疑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적대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을 통해 口演되며 전승된다.⁶⁾

민담에 대한 민중들의 태도도 演行狀況을 중요시할 때에 비로소 올바르게 연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민담이 지니고 있는 흥미성과 교훈성을 민담의 내용에서 찾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민담의 성격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 민담의 話者 중에는 교훈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의외로

4) Dan Ben-Amos, Analytical Categories and Ethnic Genres, in Dan Ben-Amos ed., Folklore Genres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6), p. 225.

5) R.D. Abrahams, The Complex Relation of Simple Forms, in Dan Ben-Amos ed., *ibid.* pp. 193-214.

6) L. Dégh and A. Vázsonyi, Legend and Belief, in Dan Ben-Amos ed., *ibid.*, pp. 93-123.

많은데 그들은 교훈담 이외의 민담은 아예 이야기로서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口演하는 민담이 주로 教훈담에만 치중되는 사람도 있다. 또 口演을 마친 뒤 그 민담이 치니고 있는 教훈적인 의미를 부연하는 사람도 많다. 민담에 대한 話者들의 이러한 태도는 민담이 口演되는 狀況을 떠나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狀況論的 입장에서의 민담 연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채집한 민담을 기록할 때 채집 당시의 演行狀況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일이 필요하다. 「Deep Down in the Jungle」에서 R. Abrahams가 한 것처럼 現場狀況에 대한 채록자의 태도와 관계도 분명해야 한다.⁷⁾ 과거의 민담 채록자들은 이야기 줄거리의 수록에만 몰두했는데 이러한 자료로써는 민담의 구조나 모티프의 연구는 가능해도 민담을 통한 민중들의 意思疏通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질 수 없다. 話者의 語調나 제스처, 청중들의 반응이나 口演에의 참여, 전체적인 상황의 묘사 같은 것은 과거의 민담 채록자들이 거의 무시한 것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래도 다행한 일이다.⁸⁾

올바른 민담 채록을 위해서는 채록시에 인위적으로 造作된 상황을 가급적 배제할 필요가 있다. 채록자가 몇 명의 보조원들과 함께 話者의 이야기를 녹음하는 경우가 흔한데 成人들끼리 對坐한 이런 상황에서 話者는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솔직한 표현을 듣기 어렵게 된다. 설화 採錄時에 자주 경험하는 바이지만, 젊은 학생들에게는 흥미 위주의 설화는 물론 淫談까지 口演하면서도 成人採錄者 앞에서는 저속한 이야기를 애써 감추면서 의식적으로 유식한 이야기만 골라 하려는 경향도 많이 있다.

민담은 성인과 성인 사이에서 전승되기도 하지만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성인과 아동 사이에서 전승되어 왔다. 口演한 민담을 처음 들은 時期가 어릴 때라는 많은 話者들의 증언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

7) R.M. Dorson ed., op. cit., p. 46 참고.

8) 현재까지로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펴내고 있는 「한국구비문학대계」가 이러한 육구를 가장 잘 충족시켜 주는 자료집이라 생각되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 자료집을 주로 이용하고자 한다.

로 민담을 採錄할 경우 성인이 아동들에게 민담을 口演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年少者를 청중으로 내세워야 할 것이며 採錄者는 話者에게 제약을 주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민담이 口演되는 곳에는 話者로서의 성인과 청중으로서의 年少者만 있고 採錄者로 인한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가 가장 理想的인 것이다. K. Goldstein이 채록자 없는 상황을 假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誘導된 자연적 상황 The Induced Natural Context'을 제안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⁹⁾

상황론적 연구 방법도 민담 연구의 완전한 방법은 되지 못한다. 전통성을 지나치게 배제한다든지 텍스트 자체의 연구를 소홀히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¹⁰⁾ 구조주의적인 방법과의 결충도 시도되고 있다.¹¹⁾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演行狀況에 대한 관심과 演行者와 청중에 대해서 주의할 기울인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이 방법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지금까지 규명할 수 없었던 意思疏通의 법칙이나 민속의 사회적·문화적 의의를 밝힐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Ⅲ. 民譚의 敎訓的 機能

문학을 포함한 예술의 기능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Y. Hirn이 심미적 요구가 아닌 실용적 목적에서 예술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이후 E. Grosse나 C. Mackenzie도 실제 생활과의 관련 아래서 예술이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심미적인 예술 충동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예술이 발생 초기부터 실용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문학에 있어서의 쾌락적 기능과 敎示的 기능의 양면성도 로마의 시인 Horatius에 의해 처음 주장된 이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으니, De Quincey는 지식의 문학은 가르치는 것이 기능이고

9) R.M. Dorson ed., *op. cit.*, p. 46 참고.

10) 김열규 外, 「민담학 개론」(일조각, 1982), p. 171 참고.

11)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p. 17.

힘의 문학은 감동시키는 것이 기능이라 하여 문학의 가르치는 기능과 감동시키는 기능의 양면성을 지적하였고,¹²⁾ R.Wellek과 A.Warren은 “어떤 작품이 교묘하게 그 기능을 나타낼 때에는 쾌락과 효용이라는 이 두개의 특색은 공존할 뿐만 아니라 合體해 있어야 한다.”¹³⁾고 하여 쾌락과 효용이라는 문학의 양면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의 두 기능은 시대에 따라 어느 한쪽이 특히 강조되었으니 예를 들면, 실제적이었던 로마의 국민들이 문학의 교훈적 기능을 강조하는 공리주의 문학관을 가졌고 이러한 태도가 고전과 시학자와 계몽주의자들에게도 계승되었다. 그리고 교회의 세력에서 벗어나 문학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옹호하려 했던 르네상스 시대에도 이러한 공리주의 문학관이 강조되었다.¹⁴⁾

현대 언어학이 사회생활 내에서의 언어의 효용면에 기초를 두는 것과 같이 민속의 연구도 효용면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¹⁵⁾ 이러한 각도에서 현대 사회 내에서의 민담의 효용성을 살펴보면 민담도 다른 문학과 다름없이 흥미성과 교훈성의 양면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담은 재미가 있다. 이야기하는 재미가 있으므로 민담은 口演되며 듣는 재미가 있으므로 민담은 청취된다. 동시에 민담은 교훈성이 있어서 삶의 지혜를 전해 준다. 이러한 민담의 흥미성과 교훈성은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것이며 조선 후기의 문헌설화의 편찬자들도 이 점을 自覺하고 있었으니 東野彙輯, 禦眼楮, 冀葉志譜 등의 설화집의 序·跋에 민담의 이러한 기능이 잘 나타나 있다.¹⁶⁾

그런데 민담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옛날부터 흥미성보다는 오히려 교훈성이 더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원 전 6세기경에 이루어진 Aesop 우화는 동물들의 이야기 속에 사회 적용을 위한 삶의 지혜를 담고 있어서 이야기보다도 교훈성이 더 증시되어 있다. 또 1700여 년 전에 완성된 Panchatantra도 아동과 청년을 위한 敎訓書다. 그 서문에 의하면 이 책은 조

12) 구인환·구창환, 「문학의 원리」(법문사, 1969), p. 23 참조.

13) R. Wellek and A. Warren, *Theory of Literature* (Penguin Books, 1970, 3rd.) p. 31.

14) 최재서, 「문학원론」(春潮社, 1957), pp. 29-32.

15) Dell Hymes, *Foundations in Sociolinguistic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9, 4th.) p. 130.

16) 조희용, 「조선 후기 문헌설화의 연구」(형설출판사, 1980), pp. 47-49.

금도 현명해 지려고 하지 않는 세 왕자를 현명하게 만들기 위해 박학하고 지식이 많은 이시뉴샤르만이라는 브라만이 편찬한 五部經이다.¹⁷⁾ 설화의 인도 기원설을 제창했던 T. Benfey 도 민담은 지식인의 창작이며 민담의 목적은 교훈과 계몽이라 했다.¹⁸⁾

민담의 起源面에서 살펴 보더라도 옛날부터 민담에는 역시 흥미성보다는 교훈성이 더 크게 작용한 듯하다. 일찌기 Grimm 형제에 의해 민담이 단순한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원시 신화가 변해서 된 것이라는 생각이 제시된 이래¹⁹⁾ 민담이 신화나 祭儀에서 발생했다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 L. Raglan 도 민담과 제의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²⁰⁾ 특히 민담과 성년식의 관계를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²¹⁾ L. Röhlich 도 결혼을 전제로 한 주인공의 모험과 고난의 主旨가 成年祭儀와 관련되어 있음을 논하고 있다.²²⁾ 옛날부터 민담을 口演하는 시간이 주로 神聖한 밤시간에 한정되었던 까닭이 신앙이나 의식을 설명하는 민담을 神聖視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²³⁾ 加入儀禮와 결부된 이러한 민담은 오늘날에 와서 加入儀禮가 無用해짐으로써 순수한 환상담으로 변하여 상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²⁴⁾

민담이 祭儀, 특히 成年式과 관련되어 있음을 是認한다면 우리는 민담의 교육적 기능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年長者가 자기의 경험을 통해 成年式에 대한 事前知識을 年少者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민담이 口演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담은 이러한 지식이 흥미성을 띠고 문학화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민담이 애초부터 가지고 있던 이같은 교훈성이나 목적성이 오늘날에 와

17) 최인학, 「한국설화론」(형설출판사, 1982), p. 231f. 참고.

18) Ibid., p. 31.

19) Dan Ben-Amos, op. cit., p. xxii 참고.

20) L. Raglan, The Hero (The New American Literary, 1979), p. 143.

21) L. Raglan, Myth and Ritual, in T.A. Sebeok ed., Myth: A Symposium (Indiana University Press, 1958), pp. 122—135.

22) 김철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일조각, 1975), p. 105 참고.

23) 최인학, op. cit., p. 68.

24) M. Eliade, Myth and Fairy Tales, in Myth and Reality (Harper & Row, 1963), p. 201f.

서 민중들에 의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으니 이같은 사실은 민담을 口演하는 口演者들의 민담에 대한 태도에서 알 수 있고 또 민담에 대한 口演者의 의미 해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口演者 중에는 이야기를 교훈적인 古譚과 교훈적이 아닌 古譚으로 구별할 정도로 교훈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고²⁵⁾ 또 교훈적인 이야기만이 전설이나 민담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믿기도 하며²⁶⁾ 口演한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꼭 들려주어야 된다면 이 이야기의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口演者도 있다.²⁷⁾ 민담의 교훈적 기능에 대한 口演者들의 태도를 채록자의 探錄記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1) 이 분의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나 있는 이야기들이었다. 즉 실제적이고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하려고 애썼다. 특히 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충효교육을 바르게 하려면 효자 이야기를 많이 들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大系 7-2, p. 31)

(2) 사람이란 형제간의 우애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조사자들에게 그런 우애(이야기 속에 나오는데)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보자는 단순히 이야기로서만 아니라 짧은이인 조사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가르친다는 점에 더 중점을 두어 이야기를 한 것이다. (大系 7-3, p. 269)

(3) ...옛날 이야기는 교훈·도덕성이 강한 것이므로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 준다는 것이 꼭 유익한 것이라고 그 효용적 가치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大系 1-5, p. 152)

(4) 자신이 구연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교훈성을 매우 강조하였는데 특히 「술의 유래」 설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요새 젊은이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라 전제하고, 그 이야기가 꼭 널리 알려졌으면 싶다는 바람까지 걸들었다. (大系 1-4, p. 656)

(5) 그러나 민담의 경우는 不可信이라고 하여 믿을 것이 못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충신 효자 열녀를 내용으로 하는 유교적 교훈성이 있는 것은 제외되어... (大系 3-1, p. 12)

(6) ...특히 이야기 가운데는 <효(孝)>를 주제로 한 것이 있으며,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후에는 의례, 이야기는 교훈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까지도 잊지를 앓고 있다. (大系 1-3, p. 405)

2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구비문학대계 1-1, p. 42. (앞으로 이 冊을 인용할 때는 ‘大系’라 약칭하고 卷數番號와 페이지란 적는다.)

26) 大系 3-1, p. 271, 1-5, p. 297, 1-4, p. 306.

27) 大系 5-1, p. 20.

위의 자료 중에서 (1)은 孝行譚을 통해 충효사상을 교육시킬 수 있다고 하여 민담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한 것이며 (2)는 민담의 흥미성보다 교훈성을 더 강조한 것이다. (3)에서도 민담의 효용을 교훈성에 두고 있으며 (4)도 교훈성을 강조하고 있다. (5)는 교훈성이 있는 민담만 진정한 이야기라고 여기며 (6)에서도 민담의 목적을 교훈성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에는 직접 口演者들의 말을 통하여 그들이 민담의 교훈적 기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다.

(7) ...그래 이거도 어 우리가 요새 충효사상 이카는메 충효사상 고취하는 때는 머이머이해도 예전 효자나 충신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이라. (大系 7-2, p. 267)

(8) [웃으면서]...이른 것이 가장 민가(민간)이 듣고 말이배. 까짓거 거짓말이야기보담도 실상 그런 것이 들을 만하그던. (大系 7-2, p. 236f)

(9) ...이놈으끼 이걸 보려는 배암이 그만치 독이 있고 이런계네, 산에 가더라도 그런 짐승이 그런 해꾸지 하절랑 못 본듯이 하고 고만 말아야지. 이런 거 석을 해야 되지, 그걸 배암이 거석하다 풍을 살리준다 이런 걸 했다가는 결국 구리한테 사람을 해꾸지 당하고 말더라.

그런게 우리 앞으로 크는 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줘도 그렇다 카는 걸, 우리가 무섭다 카는 걸 이야기 해 주만 아들도 거 안 깨달으겠나? (大系 8-6, p. 98)

(10) 그런 결과가 옛날에 있다카니, 지방도 그런 얘기 없지마는 참 심리가 말은 그만치 좋다고 싸도 말하고는 양자한 아들하고는 틀린다. 그걸 알아야 된다 카는 걸 내가 옆에 사람한테 깨달은게 (깨달게끔 이야기를 했으니) 너겨 알겠나? (大系 8-6, p. 104)

자료 (7)은 孝行譚을 통해 충효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하여 민담의 교훈적 기능을 강조한 것이며 (8)은 교훈성이 있는 민담만이 진정한 것이며 그 외의 것은 들을 만한 가치도 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9)와 (10)은 민담을 통해서 청중을 깨우치고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는 자료이다.

이상 몇 가지 자료를 놓고 볼 때에 話者들이 민담의 교훈성을 의외로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뒤에 다시 말하겠지만 이런 경향은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뚜렷해지리라 생각된다. 물론 위에 제시한 話者들은 전체 話者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채록자들이 채록상황의 기록을 소홀히 하여 話者の 태도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그 수가 결코 적다고만 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우기 채록을 위해 인위적으로 造作된 상황이 아니라 年長者와 年少者로 이루어지는 민담 본래의 口演狀況 아래서는 민담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話者들의 언급을 더욱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민담의 教訓적 기능을 重視하는 경향은 민중들의 민담에 대한 의미 해석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으니 민담의 口演을 마친 뒤에 話者 나름대로 그 민담의 의미를 해석하고 教訓성을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다. 話者에 따라서는 이야기가 끝난 뒤에 꼭 그 이야기와 결부된 教訓적인 말을 잊지 않고 덧붙이는 사람이 있다. 민담이 지니고 있는 教訓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이야기자 주는 教訓을 먼저 제시하는 話者도 있으며 이런 경우 이야기를 마친 뒤에 다시 또 그 教訓적인 의미를 덧붙여 재강조하는 수가 많다. 이렇게 민담이 지니고 있는 教訓적 의미를 덧붙임으로써 민담을 통한 교육적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이야기 자체는 비록 거짓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담긴 것은 생활에 필요한 지혜요 教訓이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11) ...그래가지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딱 뭉쳐 있으면 돈대서 돈일자 돈이요. 내가 돈이 있다고 꼭 뭉쳐두면 돈이 사라져서 어느 도둑이라도 훔쳐 가란 뜻으로 그런 얘기가 있죠. 금계 돈이 있으면, 내가 없는 사람 구제도 시기고 응. 내가 어떡 그 돈을 꼭 움켜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 굶어죽거나 말거나 딱 뭉쳐 놓으면 그 사람, 이 세상에 난 보람이 없어요. 그런거 때문에 그런 것을 깨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 (大系 5-2, p. 264)

(12) ...그러니 우리 이 세상 사람은 원망할 것이 읍능게 자기가 짓구 자기가 받는 것이지 자기가 짓지 아니한 건 자기가 받지 아니한 것인데 지금 사람들은 그 인과 상대를 몰르구 무서운(무서운) 죄도 짓구 그러니 이러한 그 인과 상대를 생각하구 죄를 짓지 안해야만 받지를 안느니라는 이런 것이 인간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이런 말입니다. (大系 4-2, p. 668)

(13) 도둑질을 해두 참 양심만 있으면 사는 수가 있어요.그래 양심을 바

루 안 씨구 나왔음, 영감이 죽던지 말았던지 그 집안이야 망하던지 말던지 참저는 고겨 고것뿐이라. 그 흠쳐 거주구 나간 돈 그것만 먹음 그만이지 달리는 없단 말야. 도둑질 해두 양심만 바로 먹음 사는 수가 있단 말야. [청충: 웃음] (大系 2-2, p. 97, p. 100f.)

(14) 남우 저 활인(活人) 카는 것, 그거로 마이(많이) 하머 좋다 카는 거로 위해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사람이 남 머 활인도 해야 되여. 해야 되치 순구 두쇠질이 내 꺼마 내 받고 복고 내 주마—(주머니에) 들어가는 거마 생각고 남으는 이때 마 죽으나 사나 내마 산다 카는 거, 그제 아이라 말이지. 이거 내가 해 놓은 거 순, 순 공덕을 마이 닦아야 후세사—도(後世上에도) 가마, 전부 이 세사아 돈 떠있는(떠먹힌) 거요. 저승 가마 다 받아 나요(놓아요). 고바—요. 받아나.

그제 아무 꺼도 앤 주이 빈 고바이지요. 아무꺼도 앤 쫓이이 내제는(나중에)는) 가머 그 사람이 받아 는 게 있다고요. 그런 이바구도 있어요. (大系 7-3, p. 472, p. 473)

자료 (11)와 (12)에는 이야기 끝에 교훈적 의미가 첨가되어 있는데 특히 자료(11)을 통하여 민담의 교훈적 기능을 잘 알 수 있다. 자료 (13)과 (14)는 이야기 첫머리에 교훈성이 제시되어 있고 끝에 다시 재강조되어 있는 경우이다. 다음 경우와 같이 교육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그 민담의 의미나 교훈성을 여러 번 길게 반복하기도 한다.

(15) …그래 맘으로 내 맘으로 천신으로 씨이꺼내 산신령이가 돌아봐가지고 삼으로 이제 아를 비에(보여) 가지고….

그러이 하마 이 도사도 하마 저—이 마누래가 지맘으로 양심으로 바리 썼나 안 썼나 하마 도사래노이(도사라서) 다 알아가지고. 여겨 천명 백명 서아(세워) 뉘봐라. 저아(자기 아이) 삶아 가지고 시어마이 말랐다고 줄 늬미 여기 누가 있을꼬. 지(자기) 맘으로 그저 천신으로, 그래 참 아이고 그까짓거 나는 노마(놓으면) 자식인데 내가 그걸 어무이(어머니) 살찐다 카모(하면) 내 자식이라도 삶아 주자꼬 본심으로 씨이꺼네 글치(그렇지). 이게 복이 돌아가서루 그래 참 시어마이가 살이 그렇게 찌가지고 그래 오래—오래 백 살도 넘게 사다가 그래 죽었단다. 그제(그러게) 워든둥(무엇이든지) 아스름하그러(정성없이 아무렇게나?)하기 보다가도 내 정성대로 내 양심대로 하모 천출(天出)로 워라도 복이 그래 돌아오그던. 그걸 누가 여겨 백 명 서아(세워) 나봐라 지 자식 삶아가 시어마이로 주고 그러까봐. 도사도 하마 다—이 마누래 마음으로 하마 알아 가주고 그랬지.²⁸⁾

지금까지 민담의 교훈성과 흥미성 중에서 교훈성에 더 큰 비중을 두어 話者들의 민담에 대한 태도와 교훈성이 어떻게 민담의 口演을 통해 표현되는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이와같은 민담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의사소통의 역할을 다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IV. 民譚을 통한 意思疎通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민담의 起源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祭儀, 특히 成年式에 있다면 그 口演의 본래 상황은 연소자에 대한 연장자의 사회적 경험이나 교훈의 전달이라 하겠다. Grimm 형제는 「Kinder und Hausmärchen」 제 1 권에서

아동의 Märchen은 맑은 따사한 빛으로 마음의 생각과 힘을 향해 성장하도록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단순한 詩情은 모두를 즐겁게 해 주며, 그 진실은 모두에게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정에 머물면서 계승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Märchen이라고 불리어진다.²⁸⁾

라고 하여 민담의 흥미성과 함께 교훈성을 지적하면서 민담이 특히 가정을 통하여 연장자와 연소자 사이에서 계승됨을 말해주고 있다. B. Malinowski에 의하면 문화 발달의 핵심적인 場은 가족이다.³⁰⁾ 전통을 傳受하는 기성세대와 전통을 이어받는 젊은 세대가 애정과 사랑으로 통합된 가족내에서 兩親의 교육을 통해 문화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문화의 전승이 이러한 계기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민담은 연장자와 연소자, 유경험자와 무경험자 사이의 意思疎通의 通路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새로운 사회, 새로운 환경에 對處해 나가는 데 필요한 경험과 교훈을 연소자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민담이 사용되는 것이다. 민속을 ‘遂行을 반복함으로써 생기는 지식의 전통적 項目의 集合體’로 볼 때에³¹⁾ 이러한 민

28) 필자 채록. 이진봉(여·78, 경북 영덕군 병곡면 삼송동 154번지) 씨가 1982년 8월 25일 口述한 것임.

29) 최인학, op. cit., p. 93 참고.

30) 말리노브스키, 轉究相譯, 「未開社會의 性과 抑壓」(三省出版社, 1977), p. 150f.

담의 교훈적 기능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조선시대의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민담의 교훈성이 더욱 강조되고 또한 민담의 교육적 기능이 중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근대에 와서는 사회의 변화와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민담을 포함한 민속의 效用價値가 점차 줄어들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흥미보다는 오히려 교훈에 민담의 기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는지도 모른다. 민담을 통해서 느끼던 흥미를 도회지전 시골이전 할 것 없이 현대의 청소년들은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 얻으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해지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교훈성을 띤 민담만은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장자와 연소자 사이의 의사소통의 通路로 사용될 것이다. 이런 점과 관련하여 교육적 效用性을 위해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교훈담(moral tales)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R.D. Abrahams도 말한 바가 있다.³²⁾ 몇몇 採錄者들의 다음과 같은 보고가 이러한 사실을 한층 실감나게 해 준다.

(16) 그전에는 이런 옛날 이야기를 통하여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즐길 뿐만 아니라, 교육의 방법으로도 써있었는데 요새처럼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것이 집집마다 생기고 나서는 도통 그런 기회가 없어지고, 아이들도 어른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더 재미있는 텔레비전으로 몰려가는 현상이 안타깝기만 하단다. (大系 1-5, p. 298)

(17) 어느 한 옛 이야기는 그것이 이야기로서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뜻(이른바 도덕성·교훈성을 뜻하는 것 같다)이 더 중요하다면서 예전에는 모두가 학교나 서당에 가지 못했으나 어려서 들은 많은 이야기로부터 부지불식간에 많은 교육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기도 하였다(大系 1-3, p. 33)

民談生態學에서는 話者와 聽者의 공동참여에 의해 민담이 재창조됨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話者는 聽衆의 필요와 요구와 기분에 따라 민담을 口演하며 청중도 變異의 창조에 참여한다.³³⁾ 민담의 의미 해석도 話者와 聽

31) R.D. Abrahams, op. cit., p. 195.

32) Ibid., p. 197.

33) M. Lüthi, Aspects of the Märchen and the Legend, in Dan Ben-Amos ed., op. cit., p. 18.

者의 상호관련 아래서 이루어진다. 즉 어느 한 민담에 대한 『교훈성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청중에 따라 달라지는 可變性을 지니고 있다. 또한 민담이 변형됨에 따라 때로는 민담이 지닌 교훈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口演된 민담의 교훈성을 두고 청중들끼리 논란을 벌이기도 한다. Dell Hymes는 北美인디안 神話 중의 하나인 <Coyote and his son's son and their wives>를 두고 男女 話者 사이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으니 코요테가 소녀를 꺾어 性交하는 이야기를 남성 話者는 여성을 卑下하는 남성들의 이야기로 받아 들이는 반면 여성 話者는 남자를 주의하라는 警告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³⁴⁾ 청중에 따른 이러한 의미 해석의 차이는 민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니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8) ...그런게 뜻은 각자가 생각하기에 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大系 5-2, p. 51)

(19) 설화 끝에 논쟁이 벌어졌다. 즉, 집안이 화목하고 잘 되려면 “남의 식구가 잘 들어와야 한다.”, “그집 문전이 좋아야 한다.”, “남편을 잘 만나야 한다.”, “시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는 주장을 제각기 했다. 이때 제보자가 머느리가 아무리 좋아도 시집 집안이 좋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시집살이 석삼년」을 했다. (大系 7-7, p. 483)

(20) ...그러니까 사람사람이 다 제 분지분복으루 먹구 산다는 지지. (大系 4-2' p. 204)

(21) ...내 아들은 어이 복진 빌어먹을 상인데, 며늘을 보면은 내 집이 앞으로 부해질따 카는 거는 그 말 아입니까. 그거 며늘을 잘 바가 그 집이 그리커름 잘 안 됐니겨. 말대로 됐지요. (大系 7-1, p. 63)

(22) ...거 그래 사람이 말로 용렬바시 안 하는기라. 그래 안 하는기라. 부모가 머러카머라도 (꾸중을 하더라도) 그 말로 여사로 들고 “그러썸더, 안 그러썸더” 카고 막 눈을 불씨고 막... 진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지. 저거 아버지가 잘못했기라. 부모도 그런기라. 부모도 자식으로 무신 그대로 하지 명령으로 하는기 아이라. 그집 할배가 잘못했는기라.³⁵⁾

34) Dell Hymes, The “Wife” who “Goes out” Like a Man: Reinterpretation of a Clackamas Chinook Myth, in P. Maranda and E.K. Maranda eds., Structural Analysis of Oral Tradi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1), p. 76.

35) 필자 채록. 박봉선(여·64, 경남 밀양군 삼랑진읍 만어리 만어동)씨가 1982년 10월 27일 부산의 동생집에 왔을 때 口述한 것임.

자료 (18)은 민담이 가지고 있는 교훈성이 시대에 따라서나 개인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가능성을 말하고 있으며 (19)는 민담의 교훈성에 대하여 청중들끼리 서로 논쟁을 벌이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0) (21) (22)는 민담의 변이에 따라 교훈성도 달리 해석됨을 보며 주는 자료로서,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자료의 순서에 따라 줄거리를 요약하여 교훈성이 달라지는 양상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20) 「사람은 제복으로 먹구 산다」

- ① 셋째딸 추방됨
- ② 솟 굽는 거지와 결혼
- ③ 이맛풀이 금임을 발견함
- ④ 부모와 재회
- ⑤ 사람은 자자의 복으로 산다.

(21) 「복진 며느리와 생금장」

- ① 정승 아들이 백정의 딸과 결혼
- ② 쫓겨나 솟 굽는 총각과 결혼
- ③ 이맛풀이 황금임을 발견함
- ④ 본남편과 자식 재회
- ⑤ 며느리를 잘 봐야 집안이 흥한다.

(22) 「자기 복으로 산다」

- ① 셋째딸 추방됨
- ② 길 가다 만난 남자와 결혼
- ③ 자기의 본집은 완전히 당함
- ④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흥미만을 위주로 하는 민담의 效用性이 점차 줄어들고 교훈을 목적으로 하는 민담을 더욱 가치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은 애초에 교훈적 의미가 없던 민담에 새로운 교훈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변신담이나 단순한 話 같은 것이 교훈성을 띠기도 하며 逸話에 교훈성이 부여되기도 한다.

(23) ...옛날에 그런 일도 있어요. 짐승에 옷밥 그래 안 준다네. (大系 7-6, p.

(24) ...어찌게 서방을 막 휘여 잠드라네. 그래갖고 각지한테 도루 서방이 잠혀 버렸어. 그런게 그러면서 그것도 입이 무거워야 된다. (大系 5-1, p. 291)

(25) ...응 그래 사람 사는데 그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게. (大系 3-2, p. 728)

(26)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음 밀피여선 안 돼. 누구든지 게 에—아무리 나만 못한 사람이래두 할 건 해야 해여. (大系 3-2, p. 392)

자료 (23)과 (24)는 「사람으로 변한 쥐」와 같은 爭主說話나 「사나운 아내 길들이기」 같은 단순한 笑話에도 敎훈성이 부여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25)와 (26)은 박 문수와 신립 장군의 逸話에 부여되어 있는 敎훈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주로 농기구와 결부된 도깨비담이 단순한 흥미에서 가 아니라 敎훈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임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³⁶⁾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민담이 발생할 때부터 지니고 있었던 敎훈성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점 더 강조되고 중요시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민담의 敎훈적 기능이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담을 전승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V. 結 論

지금까지 민담 話者들의 민담에 대한 태도와 의미 해석을 통해 나타나 는 민담의 敎訓性을 중심으로 하여 민담의 기능과 效用을 고찰해 보았다. 이 연구가 민담의 기능 전체를 규명한 것은 아니다. 자료의 선택에 따라서는 흥미성이 크게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민담의 역사나 기원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敎育적 기능을 가진 것은 분명하고 또 현대 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민속에 대한 민중들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 민담의 敎훈성이 민중들에게 더욱 중요시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敎훈담(moral tales)이란 민담의 下位장르의 설정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敎훈이 즐거리를 통해 표현되는 敎훈담은 割愛했지만 이러한 민담까지 포함한다면 敎훈담의 완전한 연구

36) 民俗學, op. cit., p. 216f.

가 이루어질 것이나 이는 다음으로 미루고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① 민담의 기능이나 效用性의 연구를 위해서는 상황론적 연구방법을 통해 민중들의 민담에 대한 태도와 민담을 통한 의사소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②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성인과 아동으로 이루어진 민담의 자연스런 口演狀況이 종합적으로 기록된 자료가 필요하다.

③ 민담의 교훈적 기능은 그 발생 동기에서뿐만 아니라 민담에 대한 민중들의 태도와 의미 해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④ 민담의 교훈성은 각 민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나 청중 또는 변형에 따라 그 의미의 해석이 달라지며 그 민담이 지니고 있는 교훈적 의미의 해석을 두고 청중끼리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⑤ 이러한 민담의 교훈적 기능은 앞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흥미 위주의 민담보다 교훈적 목적을 가진 민담만을 전승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애초에 교훈성을 띠지 않았던 變身譚이나 笑話 또는 逸話에 교훈적 의미를 부여하는 현상을 통해서도 이러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